청소년상담연구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20, Vol. 28, No. 1, 493-514

일반원고

청소년의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및 성별의 매개된 조절효과*

조진행
아람메디컬병원

송원영†
건양대학교

본 연구는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내현적자기애를 설정하고,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대인관계 추구동기, 지위추구동기, 정보추구동기, 오락추구동기)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충남권의 중·고등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21.0과 PROCESS Macro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내현적자기애와 SNS 이용동기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추구동기, 지위추구동기, 오락추구동기만이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SNS 이용동기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지위추구동기, 오락추구동기만이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SNS 이용동기 중 지위추구동기와 오락추구동기가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내현적자기애, 지위추구동기, SNS 중독경향성의 변인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매개된 조절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자기애가 높은 남성은 내현적자기애가 높은 여성보다 지위추구동기를 통해 SNS 중독경향성에 빠질 경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의 개인이 지위추구동기, 오락추구동기를 갖고 SNS를 사용할 때 SNS중독이 될 위험이 높으며, 지위추구동기가 높은 남성은 SNS에 중독될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요어 : 내현적자기애, SNS 중독경향성, SNS 이용동기, 청소년

---

* 본 연구는 조진행(2018)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송원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Tel: 041-730-5414, E-mail: 1058@paran.com

서 론

SNS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온라인 내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개인적 관심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Kelsey, 2010). SNS에 드러난 다른 이용자의 관계망을 통해 SNS 이용자는 온라인에서의 관계 폭을 점차 확장해 나갈 수 있으며(피승정, 2013),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손쉽고 빠르게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이를 즉각적으로 주변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SNS이용률 추이는 2016년 44.2%, 2017년 45.8%, 2018년 48.2%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한편, SNS를 사용하는 동안 광범위한 정보에 노출되며, 끊임없는 교류과정으로 인해 느끼는 피로감을 일컫는'SNS 피로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있다(김희연, 오주현, 2012). SNS 사용은 이용자에게 편리성과 이점을 제공하기도 하나, 과도한 사용은 부작용 또한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선미, 서경현, 2015).

SNS의 중독경향성이라는 용어는 SNS 중독이라는 용어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된다. SNS의 과도한 사용은 기존 인터넷 중독과 같은 맥락으로 특정한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하며 문제적 사용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행동중독의 하위유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중독으로 정의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중독경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이다(문영주, 2018; 임숙영, 2017; 유경자, 2017; 이주영, 2017; 이은지, 2015; 조다현, 2014). 조성현, 서경현(2013)은 SNS 중독경향성에 대해 인터넷 중독의 개념 내에서 SNS를 통한 대인관계적 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2016)의 연구에 따르면, 오프라인 상 부적응적인 대인관계를 겪고 있는 개인의 경우, 기존 관계망을 바탕으로 하는 SNS보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SNS를 선호하기 쉽다. 즉,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SNS를 이용할 수 있겠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2017)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10~19세 청소년의 77.2%가 SNS를 주로 사용한다고 답했고, 이 중 중학생의 34.7%, 고등학생의 29.5%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SNS사용은 자기표현을 통한 정체감 형성과 또래관계 유지 및 지속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한 관계유지 목적은 성인에 비해 청소년에게 두드러진다(Parker & Gottman, 1989).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의 SNS과다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SNS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상털기,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음란물 접근, 낯선 이와의 접촉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에 SNS 사용은 청소년의 학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위험성이 있다(안소영, 2018).

내현적자기애는 자기애의 유형 중 하나로, 과시적이고 과장된 웅대성을 주로 나타내는 외현적자기애와는 다르게 겉으로는 위축되고 소심해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웅대성을 지니고 있

는 성격 특성을 말한다(Wink, 1991). 외현적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몰두와 권위의식, 과장된 자기제시의 특징을 보이는 웅대성이 주된 특징이다. 이는 취약성을 내면에 숨기고 표면적으로 우월성을 강조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내현적자기애는 과민성, 취약성, 타인에 대한 의존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즉, 자신에 대한 우월성, 권위의식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잘 드러내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내현적자기애자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어려워하고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다(Brailovskaia & Bierhoff, 2016). 즉, 내현적자기애를 지닌 사람에게 SNS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대인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곳이다(이경민, 2014). 더불어 SNS의 환경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자기중심성을 충족시킬 공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Kuss & Griffiths(2011)는 자기중심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데서 더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SNS사용에 몰두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처럼 내현적자기애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취약성과 웅대성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내현적자기애성향의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내면의 과시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고, 이 때문에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SNS에 중독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황성훈 2019; 김선미, 서경현 2015; 이주영, 2017).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들은 대인관계 문제, 사회불안, 분노표현 (조은영, 곽은희, 2012; 최지영, 이영순, 2014) 등으로, 이는 개인의 기질 및 성격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기에 단기간의 핵심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에 비해, SNS사용 동기에 대한 접근은 개인의 내적 동기에 대한 세분화된 초점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성이 점차 언급되고 있다(김송이, 2014; 배지우, 박정열, 2015; 한기쁨, 2018).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다양한 이용동기가 있다. 이용-충족 이론에 의하면(Katz, Blumler, & Gurevitch, 1974), 대중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맞는 미디어 컨텐츠를 선택하게 된다. Katz et al.(1974)은 미디어 이용동기를 지적추구, 정서추구, 개인 및 사회 통합성 추구, 현실도피 등으로 구분하였고, Rubin & Perse(1987)는 정보 검색, 오락, 시간 보내기 등을 미디어 이용의 중요 요소로 설명하였다.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교류 활동 및 효용성이 이용동기로 추가되었다(함소연, 2016). SNS 이용동기에는 대인관계 추구동기, 정보추구동기, 오락추구동기, 지위추구동기 등이 있다(Park, Kee, & Valenzuela, 2009). 대인관계 추구동기란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토대로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공동체 내의 소속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용동기를 의미한다. 정보추구동기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일상적 영역에서의 정보 또는 아이디어 탐색을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락추구

동기란 심심풀이, 시간 때우기와 같은 수동적 참여와 흥미 기반의 취미활동 또는 재미추구 활동 등의 능동적 참여를 포괄한다. 지위추구동기는 SNS상의 자기표현과 자기노출을 통해 사회적 이미지를 관리하고 개인적인 지위 및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SNS 중독경향성과 SNS 이용동기의 관계에서 동기유형은 각기 다른 작용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관계형성 동기 및 유희적 동기와 같은 자발적 동기에 의한 미디어 이용이 몰입 및 행복 경험과 더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영, 2016; 배지우 외, 2015). 또한 자기확인 이용동기가 SNS 중독경향성을 높인다고 밝혀졌다(이희복, 2014; 유현숙, 2012). 함소연(2016)과 김송이(2013)의 연구에 따르면, SNS 이용동기 중 사회적 동기, 정보추구 동기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또래와의 교제 지속성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SNS 이용동기에 따라 SNS이용수준에 차이를 보인다.

한편, SNS이용동기와 내현적자기애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내현적 자기애자가 SNS 및 온라인 세계에 몰입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정체성에 대한 동기, 대인관계적 동기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동기와 내현적자기애의 관련성을 연구한 손정선(2010)에 따르면,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동기가 높으며, 그 중 현실회피 및 즐거움 추구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현적자기애의 SNS 이용동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탐색해 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다 해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용동기를 가지고 SNS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SNS중독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일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선행연구 결과 성별에 따라 자기애, SNS이용동기, SNS중독경향성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성별에 따른 자기애 성향을 살펴 볼 때, Wardetzki(2006)는 자기애 유형을 성별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남성은 과장된 자기제시가 두드러진 외현적자기애로 보았고, 여성의 자기애는 관계에서의 인정과 평가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내현적자기애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자기애적 남성은 자신의 열등감에 대해 외현적으로 방어하며 우울감으로 보상하려하기 때문에 보다 과장되고 과시적인 면이 있으며, 자기애적 여성의 경우, 부정적 성향을 보여 열등감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경험하는 등 취약한 정서적 특성을 더 드러내는 것으로 밝혀졌다(조다현, 2014; 최지현, 2011). 즉, 대인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의 성향이 내현적자기애와의 더 강한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고, 선행연구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민, 2015; 이은지, 2015). 다음으로 SNS 이용동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정보 공유 및 업무의 일환으로 비즈니스적 동기를 가지며, 여성은 개인적 일상 공유나 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SNS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곽윤희, 2011; 김유연, 2019). 마지막으로 SNS 중독경향성과 성별의 관계는 여성의 SNS 중독경향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강지혜, 2014; 정수인, 2014; 피승정, 2013; Acar, 2008). 다만, 이러한 결과들과 반대로 Cam & Isbulan(2012)의 연구와 홍수

정(2014)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SNS이용량이 많았고, 사회적 지지가 낮은 남성의 경우 SNS중독에 취약했으며(김나현, 2018), 남성의 경우에만 외로울수록 SNS에 과몰입할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화, 2017). 이상의 연구들은 내현적자기애, SNS 중독경향성, SNS 이용동기의 요인들에서 성차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하고, 나아가 SNS 이용동기(대인관계 추구동기, 정보추구동기, 오락추구동기, 지위추구동기)가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와, 이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탐색하고, 함의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충남권 소재 3개 중·고등학교에서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17년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했고,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최종 회수된 질문지는 395부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와 SNS를 사용하지 않아서 SNS 이용동기,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모두 0점으로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295명의 질문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총 295명 중 남자는 127명(43.1%)이고, 여자는 168명(56.9%)이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3학년 146명(49.5%)이고, 고등학교 1학년 149명(50.5%)이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자료

변인	유형	N	%
성별	남자	127	43.1
	여자	168	56.9
학년	중학교 3학년	146	49.5
	고등학교 1학년	149	50.5
합계		295	100

연구절차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과 PROCESS Macro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최소자승법 혹은 로지스틱회귀분석에 기초한 분석모델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시에 2개 이상의 매개변인을 단일 모형에서 동시에 추정할 수 있고, 각 매개변수의 개별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허원무,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Process Macro(Hayes, 2013)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Hayes, 2013)의 Model 4를 활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5,000번 반복 추출한 샘플에 대해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주요 변인 간의 성별 조절효과를 보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다중매개검증을 통해 확인된 매개변인에 대해 내현적자기애와 성별의 조절효과가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PROCESS Macro의 수정 Model 7을 사용하여 매개된 조절검증을 실시하였다.

수정 SNS 중독경향성

SNS 중독경향성 측정을 위해 오윤경(2012)이 개발하고, 조성현 외(2013)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NS 집착 및 금단 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투자의 3개의 하위요인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4점 Likert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조성현 외(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문항 .94, 집착 및 금단증상 .91, 과잉의사소통과 몰입 .86, 과도한 시간소비 .78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문항에서 .92, 집착 및 금단증상 .87, 과잉의사소통과 몰입 .82, 과도한 시간소비 .75로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5점)사이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이 각각 9문항씩 총 45개의 문항이

고, 그 중 3문항은 역채점이다. 하위요인으로 외현적자기애와 공통요인인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과 '착취/자기중심성'이 있고, 내현적자기애만의 고유한 요인인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이 있다.

강선희 외(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문항 .91로 나타났고,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81, 착취/자기중심성 .74, 목표불안정 .89, 과민/취약성 .80, 소심/자신감 부족 .7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 전체문항 .93,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82, 착취/자기중심성 .82, 목표불안정 .71, 과민취약성 .87, 소심/자신감 .79로 나타났다.

SNS 이용동기

SNS 이용동기의 측정을 위해 Park et al.(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최정화(2012)가 개발한 것을 홍수정(2014)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추구동기(7문항), 지위추구동기(6문항), 정보추구동기(5문항), 오락추구동기(3문항)로 4개의 하위요인에 대해 총 21문항을 이루고 있다.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10점)'까지의 10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 이용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홍수정(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계수는 대인관계 추구동기.91, 정보추구동기 .93, 지위추구동기 .93, 오락추구동기 .88 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문항 .90, 대인관계추구동기 .86, 정보추구동기 .89, 지위추구동기 .86, 오락추구동기 .72로 나타났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기술통계와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SNS중독경향성의 평균은 1.91(*SD*=0.56), 내현적 자기애의 평균은 2.57(*SD*=0.55)로 나타났다. SNS이용동기의 경우, 전체 평균 5.58(*SD*=1.39)이고, 정보 추구동기가 평균 7.12(*SD*=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오락추구동기 6.40(*SD*=2.08), 대인관계 추구동기 5.66(*SD*=1.74), 지위추구동기 3.81(*SD*=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에 정적 상관(r=.38, p <.01)이 있었고, 내현적자기애와 SNS 이용동기 중에서는 대인관계 추구동기(r=.16, p <.01), 지위추구동기(r=.21, p <.01), 오락추구동기(r=.15, p <.01)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보추구동기(r=.08, p >.05)는 내현적자기애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SNS 이용동기 전체 척도와 내현적자기애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r=.20, p <.01)이 있었다. SNS 중독경향성과 SNS 이용동기인 대인관계 추구동기(r=.34, p <.01), 지위추구동기(r=.42, p <.01), 정보추구동기(r=.20,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N＝295)

	1	2	3	3-1	3-2	3-3	3-4
평균	1.91	2.57	5.58	5.66	3.81	7.12	6.40
표준편차	0.56	0.55	1.39	1.74	1.80	1.96	2.08
1. SNS 중독경향성	1						
2. 내현적자기애	.38**	1					
3. SNS 이용동기	.44**	.20**	1				
3-1. 대인관계추구	.34**	.16**	.83**	1			
3-2. 지위추구	.42**	.21**	.78**	.59**	1		
3-3. 정보추구	.20**	.08	.68**	.36**	.29**	1	
3-4. 오락추구	.36**	.15**	.61**	.35**	.34**	.39**	1

주. **p<.01

p <.01), 오락추구동기(r=.36, p <.01) 모두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요 변인 간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표 3에 제시하였다. SNS 중독경향성(t=-3.31, p <.01), 내현적자기애(t=-2.26, p <.05), SNS 이용동기 중 지위추구동기(t=2.96, p <.01)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술 통계치를 통해 살펴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내현적자기애 성향과 SNS 중독경향성이 유의미하게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지위추구동기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변인	남(n=127)	여(n=168)	t
	M(SD)	*M(SD)*	
SNS 중독경향성	1.79 (.51)	2.00 (.57)	-3.31**
내현적자기애	2.48 (.53)	2.63 (.57)	-2.26*
SNS 이용동기	5.67 (1.51)	5.52 (1.30)	-.90
대인관계추구	5.76 (1.76)	5.58 (1.72)	.88
지위추구	4.16 (1.96)	3.54 (1.62)	2.96**
정보추구	6.98 (2.01)	7.22 (1.93)	-1.04
오락추구	6.28 (2.04)	6.50 (2.11)	-.90

주.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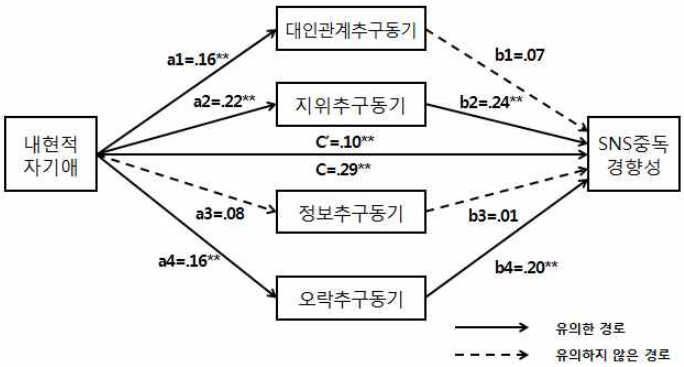
다중 매개효과 검증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각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주요 결과는 표 4, 그림 1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β=.29, p <.01; c path), 총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β=.10, p <.01; c+c′ path).

〈표 4〉 주요 변인 간 경로계수

경로계수	*B*	β	*SE*	*LLCI*	*ULCI*
내현적자기애→SNS 중독경향성	.28	.29**	.05	.18	.38
내현적자기애→대인관계추구	.50	.16**	.17	.15	.85
내현적자기애→지위추구	.69	.22**	.18	.33	1.05
내현적자기애→정보추구	.29	.08	.20	-.10	.70
내현적자기애→오락추구	.58	.16**	.21	.16	1.00
대인관계추구→SNS 중독경향성	.02	.07	.02	-.01	.06
지위추구→SNS 중독경향성	.07	.24**	.01	.03	.11
정보추구→SNS 중독경향성	-.01	-.01	.01	-.03	.02
오락추구→SNS 중독경향성	.05	.20**	.01	.02	.08

주. *LLCI*=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95%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p<.01



**p<.01

〔그림 1〕 다중매개효과 검증 모형

SNS 이용동기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 추구동기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였으나(β=.16, p <.01; a1 path), 대인관계 추구동기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β=.07, p >.05; b1 path). 둘째로, 내현적자기애와 지위추구동기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였고(β=.22, p <.01; a2 path), 지위추구동기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β=.24, p <.01; b2 path). 셋째로, 내현적자기애가 정보추구동기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β=.08, p >.05; a3 path), 정보추구동기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지 않았다(β=-.01, p >.05; b3 path). 마지막으로 내현적자기애가 오락추구동기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였고(β=.16, p <.01; a4 path), 오락추구동기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β=.20, p <.01; b4 path).

〈표 5〉 주요 변인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내현적자기애 →SNS 중독경향성	β	*SE*	*t*	*LLCI*	*ULCI*
직접효과	.29**	.05	5.68	.18	.38
총간접효과	.10*	.03	-	.03	.16
특정간접(지위)	.05*	.02	-	.02	.10
특정간접(오락)	.03*	.01	-	.01	.07
지위-오락 차이	.02	.02	-	-.02	.07
총효과	.39**	.05	7.09	.27	.49
모형요약	R^2=.14, F=50.30 $df1$=1.00 $df2$=293.00 p=.00				

주. *LLCI*=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95%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p<.05, **p<.01

내현적자기애, SNS 이용동기, SNS 중독경향성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내현적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β=.29, p <.01),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지위추구동기(β=.05, p <.05), 오락추구동기(β=.03, p <.05)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β=.39, p <.01). SNS 이용동기 중 지위추구동기와 오락추구동기가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총 간접효과(β=.10)에 대한 특정 간접효과의 영향력을 탐색해보면, 지위추구동기(β=.05)가 오락추구동기(β=.03) 보다 높고, 이는 SNS 이용동기 중 지위추구동기가 총간접효과의 55.3%를 설명하고, 오락추구 동기가 총간접효과의 31.9%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

간접효과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를 살펴본 결과, 지위추구동기와 오락추구동기 간의 간접효과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2, p >.05).

주요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의 영향

주요변인 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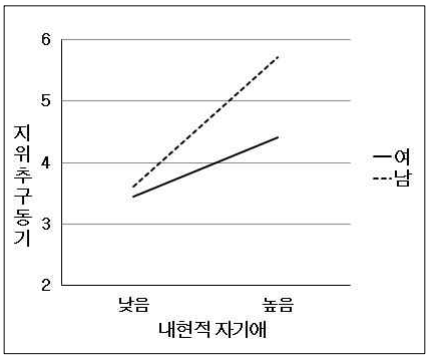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SNS 중독경향성과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여성에게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았고(각각 t=3.31, p <.01; t=2.26, p <.05), 지위추구동기는 남성에게 더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t=2.96, p <.01). 이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라 내현적자기애 및 지위추구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나아가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 지위추구동기의 매개효과에 성별에 따른 차이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현적자기애와 지위추구동기 간의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이어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지위추구동기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매개된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오락추구동기의 경우 다중매개효과는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므로(표 3) 조절효과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내현적자기애를 평균중심화 한 뒤 상호작용항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을 산출하였다(Aiken & West, 1991).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내현적자기애를 2단계에서 조절변인인 성별을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투입하여 지위추구동기에 대한 관계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6을 통해 볼 때,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R^2 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triangle R^2$= .02, p< .05). 즉, 내현적자기애가 지위추구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단순 기울기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내현적자기애와

〈표 6〉 내현적자기애와 지위추구동기 간의 성별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B	β	t	R^2	$\triangle R^2$	F
지위추구동기	1단계	내현적자기애	.70	.22	3.77**	.04	.04	14.19**
	2단계	내현적자기애	.78	.24	4.38**	.09	.05	13.80**
		성별	-.74	-.20	-3.59**			
	3단계	내현적자기애	1.40	.43	4.86**	.11	.02	11.95**
		성별	-.75	-.21	-3.70**			
		내현적자기애×성별	-1.01	-.26	-2.80**			

주. *p<.05, **p<.01



〔그림 2〕 지위추구동기에 대한 내현적자기애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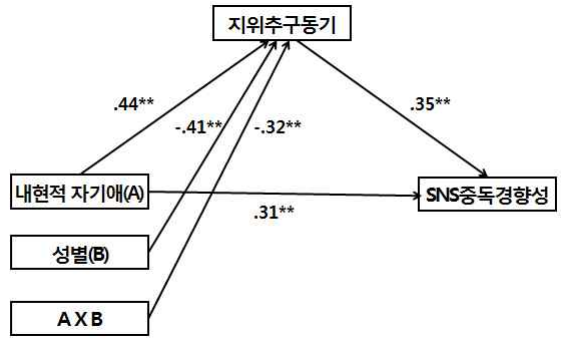
지위추구동기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변화되는 형태를 보이는데, 내현적자기애 수준이 낮은 경우, 성별 간 지위추구동기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내현적자기애 수준이 높은 경우, 여성보다 남성일 때 지위추구동기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내현적자기애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남녀 모두 지위추구동기가 높으나, 남성일 경우 그 영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내현적자기애와 성별의 조절효과가 지위추구동기의 매개효과를 거쳐 SNS 중독경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개된 조절 효과의 검증을 실시하였고, 표 7과 그림 3을 보면, 내현적자기애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지위추구동기에 대해 유의하였고 (t=2.79, p <.01), 지위추구동기는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표 7〉 성별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지위추구동기)

	결과변인: 지위추구동기					
	B	*β*	*SE*	*t*	*LLCI*	*ULCI*
상수	.68	.24	.08	2.85**	.07	.40
내현적자기애(A)	1.39	.44	.08	4.96**	.26	.61
성별(B)	1.86	-.41	.11	-3.71**	-.63	-.19
A*B	-1.01	-.32	.11	-2.79**	-.54	-.09
	결과변인: SNS 중독경향성					
	B	*β*	*SE*	*t*	*LLCI*	*ULCI*
상수	.68	.01	.05	-.05	-.10	.09
지위추구동기	.11	.35	.05	6.94**	.25	.45
내현적자기애	.30	.31	.05	6.04**	.20	.41

주. *LLCI*=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95%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p<.05, **p<.01



**p<.01

〔그림 3〕 성별의 매개된 조절모형

되었다(t=6.94, p <.01). 표 8을 보면,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지위추구동기의 매개된 조절효과는 남성일 경우 유의하였고(p <.01), 여성인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p >.05). 이를 통해 지위추구동기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현적자기애가 높은 남성은 내현적자기애가 높은 여성보다 지위추구동기를 통해 SNS 중독에 빠질 경향성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성별에 따른 조건부간접효과

	성별	조건부 간접효과	*SE*	*LLCI*	*ULCI*
지위추구동기	남성	.15**	.04	.07	.26
	여성	.04	.02	-.02	.10

주. *LLCI*=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95%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p<.05, **p<.01

논 의

본 연구는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내현적자기애를 설정하고,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SNS중독에 대한 심리 치료적 개입과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높으면 SNS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내현적자기애의

성향이 온라인상의 환경에 도취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내현적자기애 성향의 사람은 자신의 웅대한 자아상을 외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높은 수준의 이상적 자기상을 지니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 염려하고(Barry & Rowland, 2015), 취약한 자기상으로 인해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한 이상적 자기상을 SNS환경에서 이루고자 하며, 자연히 SNS에 집착과 강박적 의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김지선, 황성훈 2019; Brailovskaia et al., 2016; Ong et al., 2011)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내현적자기애와 SNS 이용동기 간의 관계에서 정보추구동기를 제외한 대인관계동기, 지위추구동기, 오락추구동기가 내현적자기애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SNS를 지위추구동기, 오락추구동기, 대인관계 추구동기를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 연구에서도 예상한 바와 같이 내현적자기애가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로서 각인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지위추구동기가(피승정, 2013: Kuss et al., 2011), 지속적으로 타인의 피드백과 시선에 민감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추구동기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이경민, 2014). 또한 내현적자기애와 오락추구동기 간의 정적 영향력은 손정선(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해당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동기를 조사하였는데, 내현적자기애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오락추구동기의 설명이 SNS 중독경향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와 SNS 오락추구동기에 대한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와 오락추구동기 간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추구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SNS를 사용하는 오락추구 동기는 습관적 이용이나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과도 연관된다. 이러한 목적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은 이에 대한 회피와 긴장감의 해소를 위해 SNS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한 정소영과 김종남(2014)에 따르면,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으로 초기에 명명된 '기분전환' 요인은 문항 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점검 끝에 '부정 정서의 회피'로 재명명 되었다. 이러한 점은 재미 추구 및 기분전환의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것 이면에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에 대한 회피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내현적자기애자의 경우 사회적 긴장감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세계를 도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김선미 외, 2015; 제현채, 김정규, 2014). 즉, 부적응적인 사회적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를 외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SNS상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몰두할 수 있다.

셋째, SNS 이용동기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 중 지위추구동기, 오락추구동기만이 유의한 수준의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SNS를 지위추구동기, 오락추구동기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SNS중독이 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김경은(2012)의 연구에서는 SNS 상의 자기표현 중 과시-도취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오랜 시간 SNS

를 사용한다고 밝혀졌다. SNS내에서의 자기 제시는 인상관리나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가능하므로 사회보상의 측면에서 SNS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유나, 2016). 즉, 선별적이고 과장된 자기제시를 통해 자신의 지위나 체면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닐 때 SNS에 더 몰두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곽윤희(2011), 강지혜(2014), Livingstone(2008)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 SNS 상의 오락추구동기는 시간 때우기를 포함해 게임, 동영상 등과 같이 흥미나 재미의 연장선에 있으며, 자발적이고 습관적인 특성으로 인해 SNS 중독경향성을 높인다고 여겨진다(한기쁨, 2018; 함소연, 2016).

한편, 대인관계추구동기는 SNS 중독경향성을 유의한 수준으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대인관계 불만족을 경험하는 사람이 SNS를 통한 대인관계 형성의 욕구가 높기 때문에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고아라, 2012; 유나, 2016)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Schutz(1958)는 인간의 대인관계 욕구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관계 형성 및 소속 욕구, 둘째, 지배 및 통제의 욕구, 셋째, 친밀함 및 애정에 대한 욕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NS 이용동기의 하위척도인 대인관계 추구동기는 '다른 사람과 연락하기 위해', '심리적 지지를 얻기 위해', '소통 관계를 얻기 위해' 등과 같이 Schutz의 욕구차원 중 첫 번째 욕구인 관계 형성 및 소속감을 주로 측정한다. 동시에 대인관계 욕구 차원 중 하나인 지배 및 통제욕구는 본 척도의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나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와 같은 지위추구동기에 더 가깝다. 각 이용동기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핵심적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 SNS 이용동기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오히려 대인관계 욕구의 전반적인 개념 내에서는 지위추구동기와 공통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핵심 개념을 구별했을 때는 소속감과 유대감 보다 지배와 통제의 목적에서 온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중독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넷째, SNS 이용동기의 두 하위요인인 지위추구동기, 오락추구 동기가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uss et al.,(2011), Brailovskaia & Bierhoff(2012), 그리고 손정선(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 중 지위추구동기, 대인관계 추구동기의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인관계 추구동기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추구동기가 높아지나 이 동기적 수준은 SNS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가 사회적 기술의 부족의 이유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타인으로부터의 관심과 인정의 관계적 욕구를 온라인에서 해소할 것이며, 이 때문에 내현적자기애가 SNS중독을 보일 위험이 높다는 기존의 설명들(고아라, 2012; 이경민, 2014; 피승정, 2013)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맥락과 유사하게 대인관계 추구동기를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유대감 및 소속감 형성에 초점적으로 접근하였을 경우,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

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내현적자기애 성향의 개인이 사회적 관계 내에서 원하는 것은 상호 교류를 통한 소속감이라기보다는 집단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 및 통제의 자기지위추구 욕구와 더 높은 연관성을 띠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내현적자기애자가 대인관계 추구동기를 바탕으로 SNS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 동기는 SNS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및 몰두의 주요 부분을 설명해주지는 못하게 된다.

다섯째, 주요변인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봤을 때, 남녀 모두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지위추구동기가 높아지고,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지나, 이 과정에서 남성의 경우 지위추구동기의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뚜렷한 성차는 밝혀진 바 없으나(김정현, 2017; 정수인, 2014), 본 연구의 경우 지위추구동기가 매개 변인으로 있을 때 남성의 SNS 중독경향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SNS의 중독적 사용에서 지위추구동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Betz & Hackett(1981)와 Wardetzki (2006)에 의하면, 남성의 자기제시는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고, 약점을 숨기는 과장된 자기제시가 특징이며, 여성의 자기제시는 외모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거리와 같은 약점을 드러내고, 인정과 평가에 과민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현적자기애 성향의 남성이 자기 과시적인 측면의 자기애적 특성이 더욱 강함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한 SNS의 사용과 중독경향성이 높아짐을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봤을 때, 여성이 대인관계적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SNS를 사용하며, 그에 따라 SNS 중독경향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결과들이 이어져왔다(정소영 외, 2014; Acar, 2008). SNS 중독경향성의 경우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여성이 더 높았으나, 대인관계적 동기에서 남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녀의 대인관계적 동기가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또래관계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가는 시기이며,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다른 연령대의 특성과는 다르게 청소년의 경우 남녀 모두 또래관계 내에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성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부권 소재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 집단에 일반화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고, 학급별 차이 존재할 수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중·고생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해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각 변인들에 대해 과대 혹은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SNS 중독경향성 척도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중독적인 사용태도에 대한 객관적 측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교사 또는 부모를 통한 다양한 평정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의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SNS 이용동기의 영향력이 크

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SNS 이용동기가 SNS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예방 개입의 활용성을 고려해본다면 의미 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내현적자기애의 대인관계 추구동기가 SNS 중독경향성을 예측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지지되지 않았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의 개인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적 욕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내현적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반복 검증한 것과 더불어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를 매개요인으로 설정하여, 이용동기 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SNS중독 개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0-990.

강지혜 (2014). 남녀 중학생의 대인불안과 자기제시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아라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의 몰입과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윤희 (2011). 모바일 SNS 이용동기와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연구: 트위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은 (2013). 자기노출과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SNS 이용형태: 카카오스토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나현 (2018).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기본심리욕구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송이 (2014). 여중생의 SNS이용동기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미, 서경현 (2015).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87-603.

김유연 (2019).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현 (2017).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가상세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민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진솔성의 매개효과 검증.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선, 황성훈 (2019). 여성의 병리적 자기애와 SNS중독의 관계: 행동활성화 체계의 매개효과와 행동억제체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2), 487-509.

김희연, 오주현 (2012). 국내외 SNS의 현황과 사회적 의미. 정보통신정책연구, 24(12), 19-42

노 영 (2016). SNS이용동기가 몰입과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17(2), 301-320

문영주 (2018).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스마트 폰의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의 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지우, 박정열 (2015).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와 행복-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3), 45-66.

손정선 (2010). 내현적자기애와 인지적 왜곡, 인터넷 사용 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소영 (2018). 청소년의 중독에 관한 문헌분석: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중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윤경 (2012). SNS 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경자 (2017). 성인의 내현적자기애 및 사회불안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대인관계문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 나 (2016). 관계적 공격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현숙 (2013). 사회불안 및 페이스북 이용동기가 SNS중독과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민 (2014). 내현적자기애가 사회불안을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 (2016). 내현적 · 외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1), 63-80. 1.

이은지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화 (2017). 외로움이 SNS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효과.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영 (2017). 내현적자기애 성향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기은폐 및 우울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희복 (2014). 청소년의 SNS 이용특성과 SNS 중독경향성 연구_경기도와 강원도 중학생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6(1), 365-391.

임숙영 (2017).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SNS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소영, 김종남 (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47-166.

정수인 (2014). 중학생의 외로움과 내현적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현채, 김정규 (2014). 내현적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14(3), 477-489.

조다현 (2014). SNS중독경향성과 병리적 자기애, 정서 표현성, 친구지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현, 서경현 (2013).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자기애, 자기제시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조은영, 곽은희 (2012). 실패 피드백 이후 내현적, 외현적자기애 성향자의 분노와 분노표현 양식. 한국재활심리학회; 재활심리연구, 19(3), 583-599.

최정화 (2012). SNS이용이 대학생들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 27, 369-408.

최지영, 이영순 (2014).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 분노표현양식 및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활심리학회; 재활심리연구, 21(1), 77-95.

최지현 (2011). 대학생의 성별 및 자기애성향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 통계 주요 결과.

피승정 (2013). SNS 사용행동에 따른 SNS중독 가능성,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차이.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기쁨 (2018). SNS이용동기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함소연 (2016). 청소년의 SNS 이용동기가 학교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원무 (2013). 매개효과 분석 방법의 최근 트렌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단순, 다중, 이중 매개효과 분석 방법. 한국비즈니스리뷰, 6(3), 43-59.

홍수정 (2014). SNS 이용동기와 네트워크 유형이 온라인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균

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car, A. (2008).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online social networking behavior: The case of Facebook. *Journal of Website Promotion, 3*(1-2), 62-83.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 *Newbury Park, CA: Sage*.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Barry, C. T., & Lee-Rowland, L. M. (2015). Has there been a recent increase in adolescent narcissism? Evidence from a sample of at-risk adolescents (2005-2014).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7,* 153-157.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410

Brailovskaia, J., & Bierhoff, H. W. (2012). Sensation seeking narcissists, extraversion and self-presentation in social-networks in web 2.0. *Journal of Business and Media Psychology, 3,* 43-56.

Brailovskaia, J., & Bierhoff, H. W. (2016). Cross-cultural narcissism on Facebook :Relationship between self-presentation, social-interaction and the open and covert narcissism on a social networking site in Germany and Russia.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5,* 251-257

Cam, E., & Isbulan, O. (2012). A New Addiction for Teacher Candidates: Social Networks.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 Technology, 11*(3) 14-19.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Katz, E., Blumler J. G., & M. Gurevitch (1974). Utilization of mass communication by the individual. The Uses of Mass Communication. 19-32. *Beverly Hills, CA; Sage*.

Kelsey, T. (2010). Social Networking Spaces: From Facebook to Twitter and Everything In Between. *New York: Springer-Verlag*.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and Public Health, 8,* 3528-3552.

Livingstone, S. (2008). Taking risky opportunities in youthful content creation; Teenager'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for intimacy, privacy and self-expression. *New Media &*

Society, 10, 393-411

Ong, E. Y., Ang, R. P., Ho, J., Lim, J. C., Goh, D. H., Lee, C. S., et al. (2011). Narcissism, extraversion and adolescents self-presentation on Faceboo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180-185.

Park, N., Kee, K. F., & Valenzuela, S. (2009). Being immersed in social networking environment: Facebook groups, uses and gratifications, and social outcomes. *CyberPsychology & Behavior, 12*(6), 729～733.

Parker, J. G., & Gottman, J. M. (1989).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a relational context: Friendship interaction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Wiley series on personality processe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 95-131). John Wiley & Sons.

Rubin, A. M.,& Perse, E. M., (1987). Audien ceactivity and television news gratifications. *Communication Research, 14*(1), 58-84.

Schutz, H. S. (1958). FIRO: A Three-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ew York: W. W. Horton.*

Wardetzki, B. (2006). 여자의 심리학. 강희진 역. 서울: 북폴리오.(원저 2000 출판)

Wink, P. (1991). Self-and Object relatedness in adult two men. *Journal of personality, 59*(4), 769-791.

[원고접수일: 2020. 03. 31. / 수정원고접수일: 2020. 06. 04. / 게재결정일: 2020. 06. 18.]

청소년상담연구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20, Vol. 28, No. 1, 493-514

regular issue manuscripts

Adolescents'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Mediating effect of SNS usage motivation & Mediating moderation effect of gender

Jinheang Jo
Arammedical Clinic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In this research, we attempte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SNS usage motivation in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For this purpose, data was collected from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cities Chungcheongnam-do, Daejeon, and analysed through multiple-path mediated effect, applying bootstrapping technique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has a significant statistical effect. Second, there is significant positive effect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usage motivation, excluding information seeking motivation. Third, only self-status, entertainment motivation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etween SNS usage motive and SNS addiction pronenes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ub-scales of SNS usage motivation (self-status, entertainment motiv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Fourth, covert narcissism, self-status motivation, and SNS addiction pronenes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Mediated moderation analysis shows that men are more likely to have SNS addiction proneness due to the influence of self-status motiv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SNS addiction proneness, SNS usage motivation, Adolescents